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명심보감』의 수양 치료적 해석:

리쾨르 해석학을 중심으로

A Therapeutic Interpretation of Self-cultivation on *MyeongsimBogam*
focused on Ricoeur's Theory of Interpretation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우 승 희

2015년 6월

『명심보감』의 수양 치료적 해석:

리콰르 해석학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서 명 석

우 승 희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우승희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5년 6월

A Therapeutic Interpretation of Self-cultivation on *MyeongsimBogam*
focused on Ricoeur's Theory of Interpretation

Woo, Seung Hee

(Supervised by Professor Seo, Myoung Seo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2015. 06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차 례

국문초록	iii
I. 문제제기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3
II. 『명심보감』 텍스트 보기와 읽기	6
1. 거리두기	6
2. 설명과 이해	10
3. 자기이해(전유)	16
III. 『명심보감』의 수양 치료적 의미	20
IV. 열린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8

표 차례

<표 1> 『명심보감』의 구성과 내용(완본 청주본 기준)	6
---------------------------------------	---

그림 차례

[그림 1] Ricoeur 해석학 이론	3
-----------------------------	---

국 문 초 록

『명심보감』의 수양 치료적 해석: 리콥르 해석학을 중심으로

우 승 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서 명 석

이 연구는 『명심보감』 텍스트에 대하여 리콥르 해석학 도구를 적용하여 수양 치료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명심보감』은 명나라 초기인 1393년 범립본(范立本)이 편찬 하였으며, 조선시대 어린이들의 교육방법 중 문리교육을 위한 유학교육 교재로써 인격형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과 실천을 담고 있다.

Ricoeur 해석학은 한마디로 텍스트 해석학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석학의 목표로 삼는다. 여기서 해석학의 대상으로써 텍스트는 “글쓰기(문자)에 의해 고정된 담론”을 말한다. Ricoeur는 텍스트 해석에 필요한 두 가지 태도, 즉 읽기 행위 안에서의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적 과정을 요청한다. 독자는 ‘설명-이해’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자신의 ‘자기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Ricoeur는 자신의 텍스트 해석학을 ‘거리두기’, ‘텍스트의 (내적) 세계’,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텍스트 앞에서의 자기이해(전유)’의 네 가지 범주로 텍스트 이론을 전개한다.

동양철학은 유·불·도 모두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수양’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수양(修養)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같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미 수양(修養)이라는 단어에서 마음을 닦는 의미가 있으나 현대인에게 특히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정신과 육체의 건강

을 증진시키고자 ‘마음수양’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불안한 심리가 해소되고 치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곧 동양 수양론이다.

지금 논의한 동양철학의 수양론을 기초로 한 치료적 의미는 오늘날 독서치료와 접목될 수 있다. 독서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오랫동안 쌓여있는 내적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서 연구자는 『명심보감』 텍스트가 기존 서지적·사상적 특성 연구, 저자 및 서문에 관한 연구, 교육적 가치 등에 국한되어 연구되는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연구자는 600년 전 과거의 텍스트인 『명심보감』을 현대적으로 불러들여 재해석을 하였고 동양철학의 수양론과 심리치료적 효과가 기대되는 텍스트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 주제어: 독서치료, 수양, 치료, 텍스트, 해석

I. 문제제기

나는 절대적인 텍스트가 있다는 신념과 결별하려고 한다!

- 리콴르/박병수남기영의 『텍스트에서 행동으로』(2004: 233) 중에서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전(古典) 읽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가치관,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과 실 새 없이 계속되는 노동, 그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 고전에 발을 들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21세기 현대에서 고전이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수천 년 전 선현과 철학자들의 지혜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위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고전 중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많은 서적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옛 우리 선조들이 서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그것은 『천자문』과 『명심보감』이었다(한재훈, 2014: 45). 특히 『명심보감』은 율곡 선생 이후 400여년 이상의 오랜 세월동안 조선시대의 초학교재로써 지금까지도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에게도 읽히며 일상생활에서도 그 문구가 자주 활용되는 책이다. 그리고 1980년대 최고의 인기 개그맨이었던 김병조씨가 ‘김병조의 마음공부’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어렸을 때 서당 훈장인 아버지로부터 처음 배운 명심보감은 괴롭고 슬플 때마다 펼쳐보며 자신을 되돌아본 내 인생의 가이드북 이었다”라고 했다(조선일보, 2014. 11. 15: B2).

『명심보감(明心寶鑑)』의 명심(明心)이란 마음을 밝게 한다는 뜻으로 명륜(明倫)이나 명도(明道)와 같은 의미이고 보감(寶鑑)은 보배로운 거울로써 마음의 교본이 된다는 의미이다(성해준, 2012: 72). 그래서 『명심보감』은 ‘심신수양서(The self-cultivation book of mind-heart)’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修’-‘養’은 오로지 ‘몸과-마음을-갈고-닦아[修]’-‘자신을-끊임없이-새롭게-성장시키는-일[養]’로 해석이 될 수 있다(서명석, 2014: 10). 이러한 『명심보감』은 오늘날 초등 도덕 교육

교재로써 수업시간과 재량활동시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전반의 도덕성 함양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조연심, 201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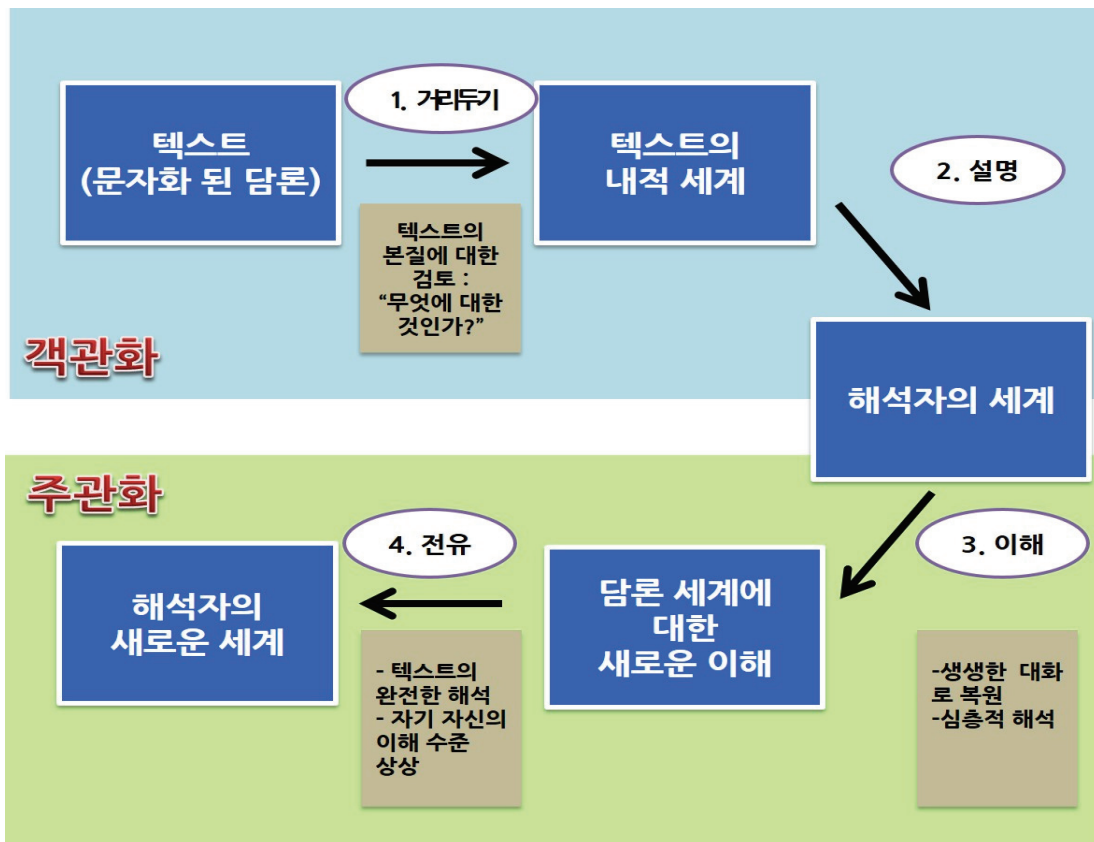
일찍이 서양의 선교사들은 동양의 『명심보감』을 서양의 『성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16세기 전후 동양에서 전도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동양의 한문서적 중 최초로 서양어로 번역되었으며 스페인을 통하여 유럽제국까지 전파되었다(성해준, 2013b: 230). 『명심보감』은 명(明)나라 초기인 1393년에 범입본(范立本)이 편찬하였는데, 이는 청주본 『명심보감』의 서문을 비롯하여 중국 내에 현존하는 판본 등에서 범입본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성해준, 2013a: 311). 또한 『명심보감』은 1454년에 청주(淸州)에서 목판으로 새겨졌고, 이 청주판은 오늘날 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그리고 1637년, 인조(仁祖)가 청(淸) 태종(太宗)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 그 해에 ‘초략본(抄略本)’ 『명심보감』이 간행되었고 조선조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명심보감』은 완본이 아닌 초략본이다(정천구, 2009: 362).

정리하면, 『명심보감』은 조선시대 서당에서 필수교재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초등 교육 교재로써 도덕성 함양 교육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동양의 한문서적 중에서 최초로 서양어로 번역되었으며, 서양의 『성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된 것을 종합해 볼 때 연구자는 『명심보감』 텍스트의 연구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본다.

이처럼 대중들로부터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명심보감』 관련 책들이 시중에 많이 발간되고 읽혀지고 있지만, 역사의 오랜 흐름 속에서 오역되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연구자는 1393년 발간된 『명심보감』 텍스트에 대하여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여 현재적 유의미성을 찾고자 한다. 즉 수양 치료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되며 연구방법론으로서 Ricoeur 해석학 이론이 적용되었다.

2. 연구방법

해석학은 이해의 문제를 본격적인 탐구 주제로 하여 철학적 논의과정을 통해 규명하는 학문이다(이재호, 2008: 13). Ricoeur의 해석학은 한마디로 텍스트 해석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석학의 목표로 삼는다. 여기서 해석학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글쓰기(문자)에 의해 고정된 담론”을 말한다(Ricoeur, 1986 / 박병수·남기영 옮김, 2004: 160). 이렇게 글로 쓰인 텍스트는 입으로 하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에서는 말하는 사건과 말하여진 것의 의미가 상호작용을 한다. 하지만 텍스트에는 말은 없고 오직 글과 글이 담고 있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강영계, 2012: 65). 즉 글로 쓰인 담론에서는 이제 더 이상 텍스트의 의미가 저자의 의도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고, 이러한 불일치로 인하여 기록은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을 얻게 된다(Ricoeur, 1976 / 김윤성·조현범 옮김, 1998: 65).



[그림 1] Ricoeur 해석학 이론(Ghasemi et al., 2011: 1624)

위의 도표(Ricoeur 해석학 이론)를 살펴보면 Ricoeur는 텍스트를 읽는 것이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해석을 위한 행위이고 자기이해로 나아가게 되는 출발점으로 본다(이서영, 2014: 11). 또한 자신의 텍스트 해석학을 ‘거리두기’, ‘텍스트의 (내적)세계’,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텍스트 앞에서의 자기이해(전유)’의 네 가지 범주로 텍스트 이론을 전개한다.

가. 거리두기

Ricoeur에게 거리두기란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조건이며,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안유경, 2009: 31). 왜냐하면 거리두기는 역사를 건디는 텍스트의 능력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독자는 작가의 시간공간으로부터 해방된다(Simms, 2002 / 김창환 옮김, 2009: 84). 말이 글이 되면서 생기는 거리두기를 Ricoeur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눈다. 첫째, 말이 글이 되면서 텍스트는 저자로부터 독립한다. 다음은 텍스트가 형성되던 시기의 최초 독자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형성되던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 이렇게 삼중의 거리두기를 통해 텍스트는 의미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변경원, 2012: 72-73).

나. 텍스트의 (내적)세계

거리두기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는 해석을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은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텍스트의 사물 곧 텍스트의 내적 세계가 된다. 텍스트는 저자의 것도 독자의 것도 아닌, 텍스트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된다(변경원, 2012: 71). 따라서 이 텍스트의 세계라는 개념은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설명의 매개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김지현, 2003: 40).

다.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설명’과 ‘이해’의 문제는 “독자가 텍스트와 마주쳤을 때 갖게 되는 태도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설명을 중시하는 현대의 인문과학과 저자를 이해하며 자기를 이해하려는 독자의 입장을 내세우는 낭만주의 해석학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그러나 Ricoeur는 이런 배척의 관계를 부정하고 설명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설명

으로의 순환을 해석 작업이라고 본다(변경원, 2012: 71). 특히 Ricoeur는 텍스트의 구조적 설명이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즉 최소한의 구조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Ricoeur, 1976 / 양명수 옮김, 2012: 85). 그래서 텍스트 해석을 ‘설명 또는 이해’의 문제로 보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텍스트는 ‘설명이면서 동시에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윤성우, 2002: 496). 바로 이러한 순환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는 더욱 구체화 되고, 텍스트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만나 심화된 독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텍스트 앞에서 새로운 자기이해의 가능성이 열린다(변경원, 2012: 71).

라. 텍스트 앞에서의 자기이해(전유)

이 단계에서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텍스트에 의해 자극받아 읽기 이전의 나와는 ‘다른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이 ‘다른 자기’의 탄생이 곧 텍스트의 매개에 의한 자기이해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가 자기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텍스트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적인 명증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텍스트가 제시한 새로운 세계에 자기를 맡기고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 맞는 자기를 그리는 독자는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할 만큼 자기와 거리를 둔다. 이것이 Ricoeur가 말하는 ‘텍스트 앞의 세계’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이다(변경원, 2012: 78-79).

자기이해(전유)는 해석학의 최종 단계로서 Ricoeur는 이것을 텍스트 뒤에 감추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저자의 의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저자와 독자 사이의 공통적인 역사적 상황이나 독자의 기대나 감정도 아니다. 또한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자기이해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 자체의 의미, 즉 텍스트가 열어주는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인지되는 텍스트의 의미인 것이다(Ricoeur, 1976 / 김윤성·조현범 옮김, 1998: 65).

II. 『명심보감』 텍스트 보기와 읽기

1. 거리두기

이제 연구자는 본격적으로 완본 청주본(1454년 간행) 『명심보감』 텍스트를 리콰르의 해석학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겠다. 『명심보감』은 총 20편 262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명심보감』의 구성과 내용(완본 청주본 기준)

篇	구 성	주 요 내 용	구 절 수
1	繼 善	쉬지 않고 선을 행하라	10
2	天 命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가	7
3	順 命	천명을 따라야 하는 이유	5
4	孝 行	부모는 나에게 누구인가	6
5	正 己	몸을 바르게 하라	26
6	安 分	분수에 맞게 살라	6
7	存 心	반성하여 양심을 보존하라	20
8	戒 性	하늘이 준 성품을 지켜라	10
9	勤 學	부지런히 공부하라	8
10	訓 子	자식을 사람으로 키워라	10
11	省心(上)	항상 마음을 성찰하라	55
12	省心(下)	항상 마음을 성찰하라	35
13	立 教	가르침을 바르게 하라	15
14	治 政	정치를 바르게 하라	8
15	治 家	집안을 잘 다스려라	8
16	安 義	올바름을 좋아하라	3
17	遵 禮	예의를 지켜라	7
18	言 語	말을 삼가 하라	7

19	交友	친구를 잘 사귀어라	8
20	婦行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행실	8
계		20편 262구절	262

『명심보감』은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억제와 극기를 강조하고 물질적 가치추구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족안분의 생활윤리를 강조하면서 수양과 극기를 논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성해준, 2007: 535). 또한 자신을 바르고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반성하고 행동을 삼가며 일에 성의를 다하고 감정을 통제해서 맑고 청렴한 생활을 권장하고 있다(성해준, 2007: 520).

위의 내용을 고찰해보면, 행동의 좌우명이나 인생의 지혜, 처세에 대한 조언, 생활에서의 지침 등이 들어 있다. 한편 남녀차별과 신분차별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현대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가치기준이나 실천방식이 전통사회와 다르기에 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 및 재구성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본격적으로 『명심보감』 텍스트를 대상으로 Ricoeur 해석학 이론의 첫걸음인 거리두기 단계로 들어간다. 거리두기는 역사를 건디는 힘이다(변경원, 2012: 71). 왜냐하면 거리두기는 『명심보감』의 저자인 명(明)나라 범입본(范立本)의 저술 의도와 1393년에 간행 되었던 당시의 독자와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명심보감』 텍스트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린 고서(古書)로써 소장용으로 책꽂이에 비치되는 신세에서 벗어나 현대의 독자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의미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연구자는 『명심보감』 텍스트 총 20편 262구절 중에서 수양 치료적 텍스트로써 10편 28구절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효행편(孝行篇)」, 「근학편(勤學篇)」, 「훈자편(訓子篇)」, 「입교편(立教篇)」, 「치정편(治政篇)」, 「치가편(治家篇)」, 「안의편(安義篇)」, 「준례편(遵禮篇)」, 「교우편(交友篇)」, 「부행편(婦行篇)」의 경우는 효도, 교육, 정치, 예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수양 치료적 텍스트에서 배제하였다. 예를 들어 남녀차별과 신분차별 등의 내용이 있는 「부행편(婦行篇)」 1구절 “夫死從子無所敢自遂也”의 텍스트는 남편이 세상을 뜨면 아내는 자식의 뜻을 따라야 하므로 감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구도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계선편(繼善篇)」

[子曰 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

[漢昭烈 將終 勅後主曰 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

[司馬溫公曰 積金以遺子孫 未必 子孫 能盡守 積書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讀
不如 積陰德於冥冥之中 以爲子孫之計也]

「천명편(天命篇)」

[種瓜得瓜種豆得豆天網恢恢疎而不漏]

[人願如此如此天理未然未然]

[莊子曰 若人作不善得顯名者人雖不害天必戮之]

「순명편(順命篇)」

[時來風送騰王閣 運退雷轟薦福碑]

[萬事分已定, 浮生空自忙]

[得一日過一日 得一時過一時]

「정기편(正己篇)」

[太公曰 勤爲無價之寶 慎是護身之符]

[性理書云 見人之善 而尋己之善 見人之惡 而尋己之惡 如此方是有益]

[老子曰 欲人不知 莫若無爲 欲人不言 莫若不言]

「안분편(安分篇)」

[擊壤詩曰 安分身無辱 知機心自閑 雖居人世上 却是出人間]

[知足者 貧賤亦樂 不知足者 富貴亦憂]

[若比向下生 無有不足者]

「존심편(存心篇)」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

[未來休指望 過去莫思量]

[景行錄云 責人者不全交 自恕者不改過]

「계성편(戒性篇)」

[凡事 留人情 後來 好相見]

[忍是心之寶 不忍身之殃 舌柔常在口 齒折只爲剛 思量這忍字 好箇快活方 片時不能忍 煩惱日月長]

[景行錄云 屈己者 能處重 好勝者 必遇敵]

「성심편(省心篇)」

[家語云 水至清卽無魚 人至察卽無徒]

[欲知未來 先察已往]

[是非終日有 不聽自然無]

「존신편(存信篇)」

[子曰 無信不立]

[老子曰 人之有信 如車有輪]

「언어편(言語篇)」

[子曰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 不失人 亦不失言]

[利人之言煖如綿絮 傷人之語利如荊棘 一言半句重值千金 一語傷人痛如刀割]

연구자는 『명심보감』의 수양 치료적 텍스트로써 10편중에서 28구절을 선정하
기준으로 수양 치료적 의미 도출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자기이해의 독
서치료에 적합한 독서활동의 세 가지 변증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확정성의 결핍과
과잉의 변증법’이다. 지나치게 교훈적이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책은 독자의 창조적
활동 또는 자기이해를 어렵게 한다. 둘째, ‘불협화음과 화음의 변증법’이다. 지나치
게 확정적인 작품은 의미의 빈곤을 가져오며, 불확정적이고 불협화음이 심한 작품
은 의미의 과잉을 불러온다. 셋째, ‘친숙함과 낯설의 변증법’이다. 즉 탐색에 너무
성공하면 친숙하지 않은 것이 친숙해지고, 독자는 자신이 작품에 의기투합하여 그것
을 믿고 결국 그 속에 빠져버린다. 반대로 탐색에 실패하면 낯선 것은 낯설게 남아 있
고, 독자는 여전히 작품의 문 앞에 남게 된다(이국환, 2012: 310-311).

다음으로 삶과 현실을 다르게 보는 법을 보여줌으로써 의미론적 혁신을 가져오는 이야기, 독자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 감동과 공감을 통해 자기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좋은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여부를 적용하였다. 또한 그러한 반성을 통해 실존적 상황에서 행동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나 자신만의 행복을 넘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야기 등의 선정기준을 참조하였다(이국환, 2012: 296). 이를 정리하자면, 연구자는 수양 치료적 텍스트 선정기준으로 신분차별과 남녀차별을 다루고 있는 등 현대사회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제외하였으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 정확한 가치 판단 기준 제시 여부, 바람직한 감정 자극 제공 여부에 두었다.

2. 설명과 이해

이제 거리두기 과정을 거쳐 해석을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은 『명심보감』 텍스트의 내적 세계가 된다. Ricoeur는 텍스트를 읽는 것이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해석을 위한 행위라고 보았다. 해석은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독자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문화나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텍스트를 읽는 행위는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마주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충돌(collision)’하도록 하는 것이 읽기 행위이다. 읽기를 통해서만 텍스트의 세계는 독자가 독자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자기이해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이서영, 2014: 55).

이제 연구자는 위와 같은 Ricoeur 해석학으로 완전 무장하여 『명심보감』 텍스트를 바라보며,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한 현대적 읽기를 시도해 볼 것이다.

먼저 「계선편(繼善篇)」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착한 본성을 이어나가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써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이종호, 2012: 19).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善)한지, 악(惡)한지에 대한 질문에 독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탐색의

과정에 들어간다. 이 두 구절은 현대인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바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쉽고도 좋은 텍스트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현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확한 삶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간의 본성으로서 착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바람직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선(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福)을 주지만, 선(善)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罰)을 준다.

[子曰 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

- 한나라 황소열 황제가 임종에 이르러 아들 후주에게 조칙을 내려 말하기를 선행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니하지 말고 악행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漢昭烈 將終 勅後主曰 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돈을 모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이를 다 지킬 수 없을 것이요,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 읽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보다 아무도 모르게 좋은 덕을 쌓는 것만이 자손들을 위한 좋은 계획이다.

[司馬溫公曰 積金以遺子孫 未必 子孫 能盡守 積書以遺子孫 未必子孫 能盡讀 不如 積陰德於冥冥之中 以爲子孫之計也]

「천명편(天命篇)」은 하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때로는 재앙을 통해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하늘이 침묵한다고 인간이 제 멋대로 살 수 없는 것이다(이종호, 2012: 25). 그렇다고 해서 독자가 이 텍스트를 읽고서 인간의 분수가 하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운명 결정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는 독자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취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정확한 삶의 가치 기준과 좀 더 바람직한 감정 자극을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씨를 심으면 콩을 얻으며,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 보이니 새는 법은 없다.

[種瓜得瓜種豆得豆天網恢恢疎而不漏]

- 사람들마다 이랬으면 이랬으면 하고 바라지만, 하늘의 이치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한다.

[人願如此如此天理未然未然]

- 장자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일로 그 이름을 드러냈다면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를 벌할 것이다.

[莊子曰 若人作不善得顯名者人雖不害天必戮之]

「순명편(順命篇)」은 운명에 순응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텍스트는 천명에 순응할 줄 아는 겸허하고 올바른 생활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하늘의 명(命)을 기다리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가 그려져 있다(안병욱 외, 2013: 51). 따라서 이 텍스트는 독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가치 판단 기준과 바람직한 감정 자극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 때가 오니 바람이 불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이 다하니 천복비에 벼락이 친다.

[時來風送騰王閣 運退雷轟薦福碑]

- 모든 일의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뜨내기 인생처럼 헛되이 바쁘다.

[萬事分已定 浮生空自忙]

- 하루 얻는 게 있으면 하루 놓치는 게 있고 한 때 얻는 게 있으면 한 때 놓치는 게 있다.

[得一日過一日 得一時過一時]

「정기편(正己篇)」은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동양고전이 마음의 성찰을 중시하는 이유도 정직과 청렴 및 관용으로 충만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이종호, 2012: 171). 나를 먼저 올바르게 하고, 또 남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정확한 가치판단 기준 제공과 더불어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 태공이 말하기를 부지런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요, 조심함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

[太公曰 勤爲無價之寶 慎是護身之符]

- 성리서에 이르기를 상대의 선행을 보았거든 내게는 그런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상대의 악행을 보았거든 내게도 그런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이렇게 한다면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性理書云 見人之善 而尋己之善 見人之惡 而尋己之惡 如此方是有益]

- 노자가 말하기를 상대가 몰랐으면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고 상대가
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老子曰 欲人不知 莫若無爲 欲人不言 莫若不言]

「안분편(安分篇)」은 주어진 분수를 편안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주어진 분수를 정확히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이다(이종호, 2012: 180). 동양의 옛 어른들은知足안분(知足安分)을 생활신조로
삼고, 처세의 지혜로 여겼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독자들에게 불안한 감정을 버리고
바람직한 감정을 불러들이는 자극을 줌과 동시에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 상황을 벗어
나게 하여 통찰과 각성을 제공한다.

- 격양시에 이르기를 분수를 지켜 흔들림이 없으면 치욕이 없을 것이요. 또한 이치를
알면 마음이 스스로 한가해져 비록 인간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나 오히려 인간
세상을 떠난 사람과 같은 것이다.

[擊壤詩曰 安分身無辱 知機心自閑 雖居人世上 却是出人間]

-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해도 즐거우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근심이 있다.

[知足者 貧賤亦樂 不知足者 富貴亦憂]

- 만약 아래쪽으로 비교하는 사람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若比向下生 無有不足者]

「존심편(存心篇)」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즉 하늘이 준 본래의 마음이 제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 통제를 잘 하는 것이 ‘존심’이다(이종호, 2012:
69). 이 텍스트의 내용은 독자로 하여금 마음이 안정되도록 하는 바람직한 감정을
주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대인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금언(金言)을 담고 있다.

- 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상대에게 주었거든 다시 후회하지 마라.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
- 오지 않는 미래를 가리켜 바라지 말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마라.
[未來休指望 過去莫思量]
-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 꾸짖기를 좋아하는 자 온전한 사림이 힘들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 잘못을 고치지 못한다.
[景行錄云 責人者不全交 自恕者不改過]

「계성편(戒性篇)」은 하늘이 준 착한 본성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착한 본성이라도 때(時)에 따라 제자리를 이탈하여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하고 같은 욕망의 분출을 억제하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여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종호, 2012: 89). 결국 이 텍스트는 독자들로 하여금 현대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노를 잘 조절하고 겸양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에 대한 조망과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 두면 다음에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凡事 留人情 後來 好相見]
- 참는다는 것은 마음의 보배이며, 참지 못함은 몸의 재앙이다. 혀는 부드러움에 항상 입속에 그대로 있으나 이가 부러지는 것은 다만 강하기 때문이다. 생각과 헤아림이 참을 인 자에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풀려 좋은 방도가 생길 것이요, 한순간이라도 능히 참지 못하면 그 번뇌가 날로 달로 커질 것이다.
[忍是心之寶 不忍身之殃 舌柔常在口 齒折只爲剛 思量這忍字 好箇快活方 片時不能忍 煩惱日月長]
- 경행록에 이르기를 자기를 굽히는 자는 능히 중요한 자리에 처할 수 있지만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景行錄云 屈己者 能處重 好勝者 必遇敵]

「성심편(省心篇)」은 마음을 항상 살피라는 뜻이다. 자아성찰을 강조면서 어떤 일의 성패나 득실이 모두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성찰의 대상이다(이종호, 2012: 75). 특히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는

데, 이는 자각(自覺)과 성찰(省察)의 자세로 세상을 보기 전에 나의 마음을 들여다 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독자들에게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자아성찰의 의미가 있다.

- 가어에 이르기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

[家語云 水至清即無魚 人至察即無徒]

-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라.

[欲知未來 先察已往]

- 시비가 하루 종일 이어져도 들어 주지 않으면 자연스레 없어진다.

[是非終日有 不聽自然無]

「존신편(存信篇)」은 믿음이 삶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사회란 모름지기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믿음 없이는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특히 스스로를 믿는 그 마음은 세상 모두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이종호, 2012: 353). 따라서 독자는 이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개인과 조직문화 속에서 겪는 갈등의 해결점으로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공자가 말하기를 신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

[子曰 無信不立]

- 노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은 마차에 바퀴가 있는 이치와 같다.

[老子曰 人之有信 如車有輪]

「언어편(言語篇)」은 말의 책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말을 삼가야 할 것을 담고 있다. 말 한 마디가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상대와 장소와 시기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존경받을 수 있기에 침묵이 용변보다 나을 때가 있다(이종호, 2012: 240). 그러므로 이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인간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절제된 언어 사용을 통한 문제해결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 공자가 말하기를 함께 말해도 될 사람인데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함께 말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말을 하면 그 말을 잃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또한 실언도 하지 않는다.

[子曰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 不失人 亦不失言]

- 상대를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상대를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단 한마디 말이라도 소중하기가 천금과 같고 상대를 해치는 말 한마디로 인한 그 고통이 칼로 베는 듯하다.

[利人之言煖如綿絮 傷人之語利如荊棘 一言半句重值千金 一語傷人痛如刀割]

독자는 이제 『명심보감』 텍스트의 10편 28구절에 대한 현대적 읽기행위를 통해서 텍스트가 펼치는 텍스트 자체의 기획되어진 세계에 자신을 개방하게 된다. 즉 독자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자기 파악이나 자기 인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더욱 폭넓은 자기를 수용하게 된다(안유경, 2009: 33-34). 이를 통해서 『명심보감』 텍스트가 주는 색다른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읽기 행위 이전의 나와는 다른 자기를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이해의 과정이다(이서영, 2014: 67).

이와 관련하여 독서치료에서는 텍스트 읽기 과정에 대하여 심리적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의 밖으로 노출되고,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텍스트를 자신의 눈으로 보며 집중하여 읽어 내려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정근 외, 2009: 46).

연구자는 이를 기초로 하여 Ricoeur 해석학 이론의 『명심보감』 텍스트 읽기 과정을 통해서 독자가 읽기 행위 이전의 자기이해를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독서치료의 통찰과 각성을 통한 마음치유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3. 자기이해(전유)

연구자는 지금까지 Ricoeur의 해석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명심보감』의 현대적 읽기 과정을 시도하였다. 이제 『명심보감』 텍스트 해석의 마지막 지점인 ‘자기이해(전유)’ 즉 텍스트가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지점’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먼저 「계선편(繼善篇)」 1구절 “子曰 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의

텍스트는 『명심보감』의 첫 구절로서 약 600년 전 과거의 텍스트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재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좋은 일(배려, 사랑, 봉사, 칭찬, 감사, 경청 등)을 하면 행복을 느낄 것이고 악한 일(무시, 강요, 불친절, 비난 등)을 하면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로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이 텍스트가 주는 다르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읽기 행위 이전의 나와는 다른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즉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통찰을 통한 감정의 정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심리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천명편(天命篇)」 17구절 “種瓜得瓜種豆得豆天網恢恢疎而不漏” 라는 텍스트는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와 오이가 달리고, 콩씨를 심으면 콩이 나와 콩이 열린다는 뜻이다. 당연히 그 누구도 오이씨에서 콩이 열리게 할 수 없고 콩씨에서 오이가 달리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섭리요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하늘의 그물[섭리]이 크고 넓어서 빠져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인간 누구도 이 하늘이 쳐 놓은 그물[섭리]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인간이 하늘의 그물[섭리]을 볼 수 없으니 믿지 못하는 것 뿐이다. 독자는 이 텍스트를 읽고서 과거 노력하지 않고서 좋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 과정이 성찰을 통한 수양이 되는 것이다.

「순명편(順命篇)」 15구절 “時來風送騰王閣 運退雷轟薦福碑”의 텍스트는 중국 당나라의 천재시인 왕발이 순풍을 만나 하룻밤 만에 칠백 리 뱃길을 달려서 등왕각에 도착하여 등왕각 서문을 지어서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는 고사이다. 이는 만사(萬事)가 이루어지려면 시운(時運)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인간사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事)도 시운이 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성사되지 않아 괴로움과 분노, 좌절에 잠겨 삶을 포기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時)를 기다리고 순풍이 불어오기 전에 더욱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순풍을 타고 삶의 기쁨을 맛볼 수는 기회가 올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기편(正己篇)」 26구절 “太公曰 勤爲無價之寶 慎是護身之符”의 텍스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진실 되고 근면하고 신중하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현대적 메시지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씩 마음을 먹고 성급한 행동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한다. 이럴 때에 이 텍스트를 읽은 독자는 해결점에 도달할 것이다.

「안분편(安分篇)」 6구절 “擊壤詩曰 安分身無辱 知機心自閑 雖居人世上 却是出人間”의 텍스트는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면 일신에 욕됨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면 마음이 절로 한가해지니 비록 인간 세상에 살더라도 도리어 인간 세상을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과욕과 불만족에서 생기는 것이다. 자기의 타고난 그릇의 크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니 세상살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존심편(存心篇)」 30구절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의 텍스트는 상대방과 물건 또는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이 텍스트는 바로 치유의 송진(松津)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대가를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생기는 마음의 간극이 크다는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베풀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해 지금도 분노와 실망, 미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텍스트를 읽고 또 읽어서 마음속에서 자기이해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

「계성편(戒性篇)」 14구절 “凡事 留人情 後來 好相見”의 텍스트는 인간관계와 일에 있어서 인정을 남겨두면 훗날 만날 때 서로 좋은 낯으로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형성되는데, 덕(德)을 쌓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분명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성심편(省心篇)」 160구절 “家語云 水至清即無魚 人至察即無徒”의 텍스트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지나치게 남의 옳고 그름을 살피게 되면 친구가 없다는 현대적 의미로 해석된다. 친구가 없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 텍스트 읽기 과정은 반성의 계기가 되고 동양적 자기수양의 실천과정을 통해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존신편(存信篇)」 8구절 “子曰 無信不立”의 텍스트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로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불신하고 반목하며 냉소적인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가족, 친구, 이웃,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언어편(言語篇)」 2구절 “子曰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의 텍스트는 말(言)이 필요한 곳에서 말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고, 침묵해야 할 곳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용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큰 소리가 오히려 오만과 경박함으로 비칠 때가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도 말실수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면 전해주고 싶은 치료적 메시지이다.

연구자는 이제 『명심보감』 텍스트에 대한 Ricoeur 해석학 이론의 정점인 ‘자기이해(전유)’를 통한 수양 치료적 해석이라는 지점에 도착했다. 이는 Ricoeur의 해석학 연구방법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즉 독자에게 해석학적 순환 과정 속에서 거리두기를 통한 시간성의 모순 극복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독자가 텍스트 세계를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하여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며,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국환, 2012: 309).

이처럼 자기이해의 과정은 읽는 행위에 잠시 머무를 뿐, 곧 떠나야 한다. 책의 저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나름대로 이해하여 그려보고 독자로 하여금 그 세계를 ‘다시 그려보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책은 그렇게 삶과 삶의 세계를 잇는 것이며, 독자는 그 요구에 응해 지평의 융합을 가져오고 그 침전의 놀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읽기 과정을 통한 자기이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것이다. 이 탐색과정이 바로 수양 치료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

III. 『명심보감』의 수양 치료적 의미

동양철학은 유·불·도 모두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심이 ‘마음수양’에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이연도, 2013: 693). 조선의 문헌을 중심으로 마음수양을 강조했던 문인들은 김시습(金時習), 서경덕(徐敬德), 이황(李滉), 이이(李珣) 등이 있었고 ‘마음챙김’을 중요시 한 것을 알 수 있다(이하경, 2009: 11-17). 중국의 경우에는 공자, 맹자, 순자, 주희, 왕양명 등이 유학을 통한 자기 수양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Ivanhoe, 2000 / 신정근 옮김, 2008). 유학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존재이며 이 과정은 오로지 자신의 몫으로 보았다. 이것이 바로 수양론의 치료적 요소이다(이연도, 2009: 81).

수양은 ‘비움’에서 시작되며, ‘비움’은 자기극복을 전제로 한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비본래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극복의 과정이 바로 자기치유 과정이다(박승현, 2014a: 104-105). ‘수양(修養)’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같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뜻한다(민중서림 편집국, 2006: 1408). 이미 수양이라는 단어에서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가 있으나 현대인에게 특히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마음수양’으로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의 정신적 위기가 대개 삶에 대한 의미 상실과 자기 조절 능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동양 수양론이 우리 시대에 다시 소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불안한 심리가 치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곧 동양 수양론이다(이연도, 2013: 693).

심리치료에서 자기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직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심리적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치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어도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직면할 수 없다면 치료적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자기 문제에 대한 인정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인정의 토대 위에 자기 성찰과 반성의 과정이 가장 좋은 치료적 과정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고희선, 2014: 118). 그러므로 치료자가 개입하여 내담자가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동양철학의 치유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동양철학의 치유는 “먼저 자신을 수양한 다음에 타인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先修己後安人’의 정신으로 볼 수 있다(박승현, 2014b: 622).

이와 관련하여 이곡(二曲)은 유학을 대표하는 사서, 오경을 모두 시대를 구하는 양방(良方)으로 보기 때문에 유가의 사서와 오경 등의 경전을 마땅히 치료적 의서(醫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정병석, 2009: 9).

공자, 안희, 자사, 맹자와 송대의 주렴계, 정이천, 장재, 주자와 명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모두 사람을 치료하는 명의(名醫)들이다. 오경과 사서와 여러 유가들의 어록은 하나 같이 모두 사람을 치료하는 양방(良方)이다(이곡집 제3권 제28하).

지금 논의한 동양철학의 수양론을 기초로 한 치유적 의미는 오늘날 독서치료와 접목될 수 있다. 문학작품이 독서치료에 사용될 때 치료에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자. 독서치료에 사용되는 문학작품들은 거리감(distance)을 제공함으로써 독자 자신을 관찰자처럼 느끼고, 문제를 평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준다는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문학작품은 친밀감(immediacy)을 제공하여 독자들을 몰입하게도 한다(김현희, 2010: 8). 독서치료의 유형은 발달적(developmental) 독서치료와 임상적(clinical) 독서치료로 나뉜다. 발달적 독서치료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과업에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서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자료와 토론활동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당면한 발달과업을 달성하고 일상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데 주안점을 둔다. 임상적 독서치료는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인 면에서 심하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개입의 형태로서 특별한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된다(김수경, 2007: 282). Hynes와 Hynes-Berry는 독서치료의 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유현승, 2008: 38).

- (1) 삶에 대한 반응능력을 향상시킨다.
- (2) 자기통찰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 (3) 대인관계를 명료화시킨다.
- (4) 현실을 보는 견해를 확장시킨다.

김수경(2005)은 독서치료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인간 발달과정상의

이해의 문제, 심리 정서적인 불편함, 상처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들은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한복희, 2007: 207. 재인용). 그리고 독서치료는 책이 ‘침묵의 치료사’가 되어 책 속의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책읽기 과정이다. 특히 몸과 마음이 급속히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에 이 영역의 책읽기는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성장과정 속에서 심리 정서적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수경, 2007: 286).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명심보감』 텍스트 보기와 읽기 행위를 통한 수양 치료적 의미는 독서치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각성과 통찰을 줄 수 있는 수양 치료적 텍스트임을 강조한다. 문학을 매개로 한 독서치료는 치료자가 개입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내담자가 직면한 상황별 도서목록을 선정하고 토론과정을 거친다. 반면에 『명심보감』 텍스트는 치료자의 개입 없이 자각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수양 치료적 텍스트이다. 수양의 목적이 본래 내게 주어진 마음을 지키고,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을 키우는 것으로써 바로 그러한 힘을 기대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이연도, 2013: 7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보감』의 텍스트가 수양 치료적 가치 입증에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수양(修養)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사람에 따라 자기이해(전유)의 과정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마음 치유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IV. 열린 결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물질적 풍요와 삶의 다양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우리는 불안이라는 고통 속에서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평온과 잃어 버렸던 자기를 찾고자 절에 들어가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고 인도 명상원을 찾아다니거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의 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

연구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에 대해,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로써 우리의 전통문화 텍스트인 『명심보감』 텍스트야말로 다시 우리 현대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심보감』이 과거 오랜 세월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라는 내재적 힘을 지닌 텍스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600년 전 과거의 텍스트인 『명심보감』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Ricoeur의 해석학 연구방법 도구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현대적 읽기과정을 통해 『명심보감』이 심리 치료적 효과가 기대되는 수양적 텍스트로서 현재에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명심보감』 텍스트가 주는 해석학적 선순환의 수양 치료적 메시지는 수 백 년의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다가온다.

『명심보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서지적·사상적 특성 연구, 저자 및 서문에 관한 연구, 교육적 가치 등에 국한되어 논의 되어 왔다. 또한 우리 몸과 마음에 흐르고 있는 동양철학의 대표적인 『명심보감』이 심리치료 분야에서 독서치료를 위한 치유적 텍스트로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책이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 왔다. 하지만, 매달 서점가에 쌓이는 실용서나 자기계발서는 작가의 의도가 지나치게 드러나는 교훈적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뻔한 이야기로는 자기 이해의 독서를 경험하기 어렵다. 흔히 위로하는 책을 치유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로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으며 아픈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책을 읽은 후 각성(awakening)이 있고 통찰(insight)이 생기면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치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각성을 주고 삶의 재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책이야말로 올바른 치유서이다 (이국환, 2012: 309).

이 점에서 동양철학의 수양론을 기반으로 한 수양 치료적 모델은 심리치료자에 의해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처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독자는 내면의 힘이 강해지고 내면의 평화와 고요를 느낄 수 있는 명상치료, 알아차림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명심보감』 텍스트 읽기의 수양 치료적 해석과정은 임상적 치료가 아닌 발달적·예방적 치료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명심보감』

『二曲集』

강영계(2012). **리콤피르가 들려주는 해석 이야기**. 서울: 자음과 모음.

고희선(2014). 맹자 심성론의 심리 치료적 적용에 대한 시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경(2007).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1-22.

김수경(2005). 현단계 독서치료의 발전과 지향. **국회도서관보**, 38-56.

김정근 외(2009). **체험적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김지현(2003). 폴 리콤피르의 텍스트 해석 이론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희(2010).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민중서림 편집국(2006).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박승현(2014a). 장자의 수양론과 마음치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0, 71-110.

박승현(2014b). 노자의 수양론과 마음치유. **인문과학연구**, 40, 601-624.

변경원(2012). 리콤피르의 철학적 해석학과 그 여성 신학적 적용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명석(2014). 『명심보감』의 교육적 의의: 가다머의 ‘전통’ 관점과 도킨스의 ‘밈’ 가설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53, 53-77.

성해준(2007). 『명심보감』 본문 각 편의 내용 고찰(天人思想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3, 513-545.

성해준(2012). **동아시아 명심보감 연구**. 서울: 문.

성해준(2013a). 『명심보감』의 저자 및 ‘서문’에 관하여. **일어일문학**, 33, 305-319.

성해준(2013b). 『성서』와 『명심보감』 권선사상의 공통점. **일본문화연구**, 45, 229-247.

손혜련(2011). 합리·정서·행동치료를 바탕으로 한 독서치료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가 대처 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병욱 외(2013). **명심보감**. 서울: 현암사.

안유경(2009). 리콤피르의 상상의 해석학과 인간의 새로운 자기 이해에 관한 고찰.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명수 역주(2012). **해석의 갈등**. 파주: 한길사.

양재한(2005). 중학생들의 낮은 자존감 극복을 위한 독서치료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21-46.

유현승(2008). 독서치료 수업모형 개발과 학생 반응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성우(2002). 텍스트란 무엇인가. **프랑스학 연구**, 23, 485-512.

- 이국환(2012). 자기이해와 치유의 독서. **석당논총**, 54, 287-317.
- 이기연(2009). 폴 리콥르: 해석학과 자기 이해. **불어불문학연구**, 79, 401-439.
- 이서영(2014). 자기이해를 위한 인문적 사회과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도(2009). 치유로서의 수양과 수양치료 모형. **중국학보**, 59, 79-85.
- 이연도(2013). 힐링(healing)과 동양수양론. **인문과학연구**, 3, 691-710.
- 이연옥(2009). 역기능 가정 자녀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406-431.
- 이재호(2008). 리콥르 서사해석학과 도덕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호(2012). **현대인과 동양고전**. 성남: 북코리아.
- 이지연·김영혜·김경심(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공감능력 및 이타주의에 미치는 효과. **홀리스틱교육연구**, 13(3), 49-70.
- 이하경(2009). 마음수양의 현대화를 위한 차명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재 역주(2012). *MyeangsimBogam*. 과주: 지문당.
- 장덕현·장영남(2006). 나이 들의 상처 극복을 위한 독서치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201-221.
- 장승원(2004). 심성계발프로그램을 적용한 명심보감 활용수업이 중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석(2009). 醫書로서의 經典과 治療로서의 修己: 李二曲의 四書反身錄과 悔過自新設에 보이는 哲學治療적 思惟.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58(4), 2-22.
- 정수현·이명규(2011). 초등학생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학위논문의 동향 분석: 2003-201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317-333.
- 정천구(2009). 명심보감의 사상적 특성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9, 361-389.
- 조선일보(2014. 11. 15). 개그맨 김병조, 명심보감 전도사로 인생 2막. B2.
- 조연심(2010). 초등학교 덕교육론 연구(『명심보감』 활용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복희(2007).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헌정보학지**, 41(4), 201-215.
- 한재훈(2014). **서당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 서울: 갈라파고스
- Ghasemi, A., et al.(2011). Ricoeur's Theory of Interpretation: A Method for Understanding Text(Course Text).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15(11), 1623-1629.
- Hynes, A. M. & Hynes, B. M.(1994).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 Ivanhoe, P. J.(2000). *Confucian Moral Self Cultivation*(2nd ed.). Indianapolis: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신정근 역주(2008). **유학, 우리 삶의 철학**. 서울: 동아시아.

- Ricoeur, P.(1976). *Interpretation Theory*. Fort Worth: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e. / 김윤성 · 조현범 옮김(1998). **해석이론**. 서울: 서광사.
- Ricoeur, P.(1986). *(Du)texte a l'action: essis d'hermeneutique II*. Paris: Seuil. / 박병수 · 남
기영 편역(2004).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서울: 아카넷.
- Simms, K.(2002). *Paul Ricoeur*. Paris: Routledge. / 김창환 옮김(2009). **해석의 영혼 폴 리쾨르**.
서울: 엘피.

ABSTRACT

A Therapeutic Interpretation of Self-cultivation on *MyeongsimBogam* focused on Ricoeur's Theory of Interpretation

Woo, Seung Hee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eo, Myoung Seok, Ph. 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ttempt cultivation therapeutic interpretation by applying Ricoeur hermeneutics on *Myungshimbogam* text. *MyeongsimBogam* was compiled by Beom, Iip Bon(范立本) in the early years of the Ming dynasty, 1393. This book was used as a Confucian textbook to educate children for a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and contains basic virtues and practices which are needed to form one's character.

In short, Ricoeur hermeneutics is text-hermeneutics, and it aims to newly understand one's own self. The text, as an object, means 'fixed discussion by writing (letters)'. Ricoeur calls for dialectical process of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within the act of reading, two kinds of attitudes needed for interpreting the text. Through this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hermeneutics circulation, readers can proceed toward 'self-understanding'. Ricoeur develops his text theory with four categories of text hermeneutics,

such as 'keeping distance', 'inner world of the text',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dialectics', and 'self-understanding in front of the text (appropriation)'.

As all Eastern philosophies, including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focus on 'mind cultivation' for human, they can provide clues that help us to overcome a spiritual crisis in the community.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self-cultivation(修養) means to cultivate one's mind-and-heart to raise personality, knowledge, and morality to a higher level. Even though the word 'self-cultivation' has the meaning of improving one's mind, the expression of 'mind cultivation' is emphasized to improve physical and spiritual health for modern people by controlling their mind especially. It is Eastern self-cultivation theory that has an effect on relieving and treating anxiety through this cultivation process.

This therapeutic meaning, based on the self-cultivation theory of Eastern philosophy which is discussed, can be incorporated into bibliotherapy. Bibliotherapy is using books to aid clients in healing a long, lingering inner hurt by drawing a positive change, and eventually it improves the quality of their lives.

With this reviewing process, the researcher needs to break from the study of *MyeongsimBogam* text, limited to the existing study of bibliographic and philosophic characteristic, study of authors and preface, and educational value. Accordingly, the researcher reinterpreted a 600-year-old *MyeongsimBogam* text into a modern one, and tried to select texts which are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psychotherapy and the self-cultivation theory of Eastern philosophy.

※ keyword: bibliotherapy, self-cultivation, therapy, text, interpretation

